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4호 【루게 제24972호】 주제104(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총정의 로력적선물로 10월의 대축전을 빛내이자

전당, 전군, 전민이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일 대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때로부터 반년이 흘러갔다.

지난 6개월간은 온 나라가 대비약혁명으로 새차게 뛰어넘는 격동의 나날이었다. 당창건 일흔돐이 가장 훌륭한 선물을 드리려는 천만군민의 비상한 정신력은 날마다 전례없는 기적과 위훈을 낳았고 우리 조국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뜻깊은 혁명적명절이 하루하루 가까와오고있는 때보다 큰 로력적선물로 10월의 대축전을 빛내려는 우리 인민의 열의는 더욱 고조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전에 멋뜻이 들어서야 합니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 이것은 두 세기의 하늘가에 새겨진 기적의 날이 되는데도 강성부흥의 새 역사를 창조해온 혁명적당, 주체조선의 높은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는 중요한 정치적이기이다.

경사스러운 사변들을 맞이 할 때마다 한사람같이 떨쳐나 애국총정의 선물을 마련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이 전통적인 투쟁기풍은 의의있는 명절들이 겹친 올해에 더욱더 승고한 높이에서 발휘되고있다.

지난 상반기간간 사회주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조국력사에 특기할 자랑찬 성과와 변혁이 이루어졌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과 생산적양양의 불길기 세

차게 타넘고 많은 공장, 기업소에서 상반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레네에 없이 불리한 조건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된 올해의 모내기전투는 대공작으로 10월의 대축전을 빛내려는 우리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지원자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모든것이 국산화된 경비행기들을 만들어내고 세계적수준의 생물농약의 연구개발과 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였으며 바다연어양어의 휘황한 전당을 열여놓은것을 비롯하여 놀라운 과학기술적성공들이 이루어졌다.

신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과학기술전당, 미미과학자거리들을 비롯한 수많은 중요대상 건설장소에서 세계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이 높이 떨쳐졌다.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지구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게 하는 몇몇이농장도시로 전변된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인민군대에서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목표와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우리 혁명투쟁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실전의 분위기속에 진행된 전투훈련들과 화력타격연습들은 우리 인민군대가 미래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나 전투에도 다 준비되어있음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은 적대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우리 식의 최첨단타격수단들을 려이 개발완성함으로써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하였다.

올해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난관은 극도로 복잡하고 엄중하였다.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도, 겹겹인 시련도 당창건 일흔돐을 훌륭히 로력적선물로 맞이하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강렬한 지향과 결사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적대세력들의 압력이 가중되고 역풍이 사나울수록 백백불굴의 정신력을 더욱더 무섭게 폭발시켜나가는 백두산대국의 혁명적기상이 다시 한번 힘있게 확충되었다.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발휘되고있는 천만군민의 영웅적위용은 우리 시대의 가장 존엄이고 권위있는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전일일흔돐을 세계가 보듯듯이 성대히 경축하려는 불같은 총정의 파시이다.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과학기술전당, 미미과학자거리들을 비롯한 수많은 중요대상 건설장소에서 세계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이 높이 떨쳐졌다.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지구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게 하는 몇몇이농장도시로 전변된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인민군대에서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목표와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우리 혁명투쟁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실전의 분위기속에 진행된 전투훈련들과 화력타격연습들은 우리 인민군대가 미래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나 전투에도 다 준비되어있음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은 적대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우리 식의 최첨단타격수단들을 려이 개발완성함으로써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하였다.

올해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난관은 극도로 복잡하고 엄중하였다.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도, 겹겹인 시련도 당창건 일흔돐을 훌륭히 로력적선물로 맞이하기 위한 우리

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따라 광휘로운 매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올려는 드높은 신심과 애국열의의 분출이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령도와 결사는 오늘 백두산대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서 빛나게 계속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혁명신념은 시대와 혁명을 이끄는 기관차이고 원수님의 강철의 단력과 불같은 총정의 파시이다.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과학기술전당, 미미과학자거리들을 비롯한 수많은 중요대상 건설장소에서 세계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이 높이 떨쳐졌다.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지구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게 하는 몇몇이농장도시로 전변된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인민군대에서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목표와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우리 혁명투쟁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실전의 분위기속에 진행된 전투훈련들과 화력타격연습들은 우리 인민군대가 미래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나 전투에도 다 준비되어있음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은 적대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우리 식의 최첨단타격수단들을 려이 개발완성함으로써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하였다.

올해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난관은 극도로 복잡하고 엄중하였다.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도, 겹겹인 시련도 당창건 일흔돐을 훌륭히 로력적선물로 맞이하기 위한 우리

시에 우리들자신의 행복한 매일을 앞당기는 보람찬 사업이다. 1950년대에 우리 인민은 동부는 천리마를 뚫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며 조국력사에 길이 빛날 혁명적대공작을 일으켰다. 당창건 일흔돐을 최고의 사업적적으로 맞이하겠다는 확고한 결심, 후대들에게 오늘의 위훈에 대하여 긍지높이 말할수 있게 일해나갔다는 승고한 혁명신념은 시대와 혁명을 이끄는 기관차이고 원수님의 강철의 단력과 불같은 총정의 파시이다.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과학기술전당, 미미과학자거리들을 비롯한 수많은 중요대상 건설장소에서 세계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이 높이 떨쳐졌다.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지구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게 하는 몇몇이농장도시로 전변된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인민군대에서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목표와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우리 혁명투쟁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실전의 분위기속에 진행된 전투훈련들과 화력타격연습들은 우리 인민군대가 미래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나 전투에도 다 준비되어있음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은 적대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우리 식의 최첨단타격수단들을 려이 개발완성함으로써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하였다.

올해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난관은 극도로 복잡하고 엄중하였다.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도, 겹겹인 시련도 당창건 일흔돐을 훌륭히 로력적선물로 맞이하기 위한 우리

며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올해농사에서 기어이 대공작을 이룩하기 위한 결사의 투쟁을 벌려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워야 한다.

과학기술전당과 미미과학자거리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제기일단에서 무조건 완공하여야 한다.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실천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충정의 보수를 드리고 선군조선의 애국총정의 맥동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선 신년사파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드세치게 벌려나가야 한다.

10월의 명절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려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들여보고 그 수훈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도록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있는 년간계획완수자들을 비롯하여 위훈의 창조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있다. 이들이야말로 맹세와 실천이 일치한 총정의 인간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천리마수들의 모범을 본받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한 평양생물기술연구원 과학자들의 성과와 높이 평가하며 10월 10일 경축행사에 특별순으로 초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는 온 나라 과학자들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들을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이 우리러보는 인민의 락원업을 빛내이는 성스러운 사업인 동

모든 일군들이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되어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총결기, 총발동시켜야 할 때이다. 일군들은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격렬한 전방에 지휘부를 전개하고 당창건 일흔돐을 뜻깊은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전당과 미미과학자거리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제기일단에서 무조건 완공하여야 한다.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실천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충정의 보수를 드리고 선군조선의 애국총정의 맥동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선 신년사파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드세치게 벌려나가야 한다.

10월의 명절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려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들여보고 그 수훈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도록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있는 년간계획완수자들을 비롯하여 위훈의 창조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있다. 이들이야말로 맹세와 실천이 일치한 총정의 인간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천리마수들의 모범을 본받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한 평양생물기술연구원 과학자들의 성과와 높이 평가하며 10월 10일 경축행사에 특별순으로 초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는 온 나라 과학자들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들을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이 우리러보는 인민의 락원업을 빛내이는 성스러운 사업인 동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힘차게 앞으로!

백암땅에 또다시 울려 퍼진 승리의 함성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항해복도려단에서 언제 좌안공크리트치기 빛나게 결속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 연제공사에 앞당겨 끝내기 위한 총공격전으로 벌어지는 속에 백두청춘들이 떠나는 승리의 함성이 또다시 백암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지난 6월 18일까지 연제와 안의 지지대공크리트암을 끝낸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항해복도려단과 청년돌격대원들이 양양현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야적형언제의 23블록에 대한 타임전투를 출가차게 벌려 지난 12일 새벽 3시 30분까지 빛나게 결속하였다. 현장연합지휘부에서 하달한 전투명령을 한달반이상 앞당겨 수행한 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승리의 그 시각 평양하늘가를 울리며 《만세!》의 환호성을 퍼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치지도이후 연제와 안공크리트암에 달라붙는 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말기전 전투명령을 무조건 앞당겨 수행할 애국총정의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이였다. 려단 일군들은 현장연합지휘부에서 하달한 전투명령을 한달반이상 앞당겨 수행한 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승리의 그 시각 평양하늘가를 울리며 《만세!》의 환호성을 퍼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행한 3개 블록의 타임과제를 단독으로 맡아 수행하게 된 조건에서 전투목표를 비상이 높게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짜고 들었다. 특히 백두밀밭에서 창조된 지력정령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혼합물수송용로를 연제타임에 개설함으로써 높은 공사속도를 보장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려단정치부에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의 피를 끓여주는 정치사업, 직관선동, 기동예술선동대 활동을 화선식으로 벌려 그들의 결사관철의 의지, 모담의 각오를 열백배로 더해주었다.

원수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려단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18일까지 연제와 안의 지지대공크리트암이 빛나게 결속되는 첫 전투승리가 마련되었다.

이 나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가슴속에서 만장약하며 온 어떤 불가능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더욱 깊이

새긴 려단의 전체 청년돌격대원들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야적형언제의 23블록에 대한 타임전투에 대담하게 달려나갔다. 이들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회틀조립을 한 시간이라고 앞당기는데 공격속도를 높이는 비결이 있었다. 이것을 명심하고 창조적예외와 열정을 다 바쳐가며 회틀조립을 맡은 로동자들의 일손을 스스로 도와나갔고 어려울 일을 솔선 맡아해제하였다. 이곳 대대에서는 혼합기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데 큰 힘을 넣어 교대시간을 단 순간도 짧아짐이 질 좋은 혼합물을 연속 생산해냄으로써 블로크 한개당의 콩크리트치기를 최고 12시간만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남달리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두달 남짓한 기간에 7000m³ 이상의 연제공크리트치기를 진행하여 수심m의 연제를 일떠세운 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전문건설단위와의 협동하여 21블록에 대한 타임전투에서 더 높은 속도를 창조할 비대한 열의를 과시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1대대와 4대대, 5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도 려단앞에 맡겨진 전투명령을 앞당겨 수행한 만만한 투지에 넘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회틀조립을 한 시간이라고 앞당기는데 공격속도를 높이는 비결이 있었다. 이것을 명심하고 창조적예외와 열정을 다 바쳐가며 회틀조립을 맡은 로동자들의 일손을 스스로 도와나갔고 어려울 일을 솔선 맡아해제하였다. 이곳 대대에서는 혼합기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데 큰 힘을 넣어 교대시간을 단 순간도 짧아짐이 질 좋은 혼합물을 연속 생산해냄으로써 블로크 한개당의 콩크리트치기를 최고 12시간만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남달리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두달 남짓한 기간에 7000m³ 이상의 연제공크리트치기를 진행하여 수심m의 연제를 일떠세운 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전문건설단위와의 협동하여 21블록에 대한 타임전투에서 더 높은 속도를 창조할 비대한 열의를 과시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각종 설비 및 장치물조립공사 힘있게 추진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창조와 비약의 열풍이 계속 세차게 불어치고있다.

발전기본체와 연제수문련양기, 수문설치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 건설장에서 각종 설비, 장치물조립공사도 동시에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미 회천 8호와 9호발전소 건설장에서 방수수문과 취수구공정자살설치공사가 성파적으로 추진되고 회천 4호부터 10호까지 발전소건설장의 방수수문조립에서 큰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또한 여러 발전소건설장에서 물고기수문과 수동연양기설치가 다급히 추진되고있다.

연산스레트광산 일군들과 광부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교수동, 미미과학자거리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기본공사대상인 발전기와 연제수문련양기, 수문과 각종 설비, 장치물조립공사를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간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해당 부문의 긴밀한 려단에서 각종 설비, 장치물들의 생산과 수송을 기동적으로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면서 공사단위에서 조립공사를 설비전의 방법으로 내밀도록 하고있다.

발전기가동을 위한 설비, 장치물조립에서 큰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회천 8호와 9호발전소 건설을 맡은 평안남도, 평양시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구조물공사를 앞세우며 맞게 취수구공정자살설치와 방수수문, 연양기들이 들어오는죽죽조립설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이들은 해당 부문 기술자들과의 려단에서 지난 5월 설계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설치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취수구공정자살설치가 전반적인 건설단계에 도착한 실정에 맞게 각 단위들에서 설

치공사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물고기걸수문과 수동연양기 제작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물고기걸수문공사를 완벽하게 내밀기 위한 마감작업을 벌리면서 수문제작을 적극 다그쳤다. 하여 회천 5호와 8호, 9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4월에, 회천 4호와 10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5월에 물고기걸수문과 수동연양기설치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자랑을 펼쳤다. 한편 단위들에서는 일명방치기 등 마감보조설비들이 도착하는 차며로 설치하기 위한 준비도 빈틈없이 갖추었다.

본사기자 류기홍

과학기술전당건설에 필요한 석재를 최우선적으로

연산스레트광산 일군들과 광부들

연산스레트광산 일군들과 광부들이 당에서 중시하는 과학기술전당건설에 필요한 석재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이들은 10월의 대축전장을 자랑찬 로력적선물로 빛내일 불같은 열의와 열정을 발휘하여 5월말부터 석재생산량을 보충해보다 1.5배로 높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대상은 건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건설에서 건설은 근대에 비유하면 총포탄과 같습니다.》

속설지구에 일떠서는 과학기술전당은 최근 몇해여간만에 거창한 규모로 벌어진 수도건설대상중에서 석재소요량이 가장 많은 건설대상이다.

이 벽을 올리면 강산을 울릴 기세로 펼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에 따라 동력과 화공품이 부족 한 조건에 맞게 발파를 하지 않

생성되었다.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수도건설장에 석재를 려이 끌어오내는 이 단위는 지금 과학기술전당건설에 각종 건설을 생산보장하는데서 우수한 단위로 손꼽히고있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전당적, 전국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유일, 한층철, 민인철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켜 온 광산에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세차게 휘몰아치도록 화선식정치사업과 생산지휘를 혁명적으로 하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지난 5월부터 수도건설에 필요한 석재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최단기간에 보장하기 위한 작전을 펴고 로력과 동가공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의 면면한 작전에 따라 동력과 화공품이 부족 한 조건에 맞게 발파를 하지 않

연산스레트광산 일군들과 광부들이 당에서 중시하는 과학기술전당건설에 필요한 석재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이들은 10월의 대축전장을 자랑찬 로력적선물로 빛내일 불같은 열의와 열정을 발휘하여 5월말부터 석재생산량을 보충해보다 1.5배로 높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대상은 건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건설에서 건설은 근대에 비유하면 총포탄과 같습니다.》

속설지구에 일떠서는 과학기술전당은 최근 몇해여간만에 거창한 규모로 벌어진 수도건설대상중에서 석재소요량이 가장 많은 건설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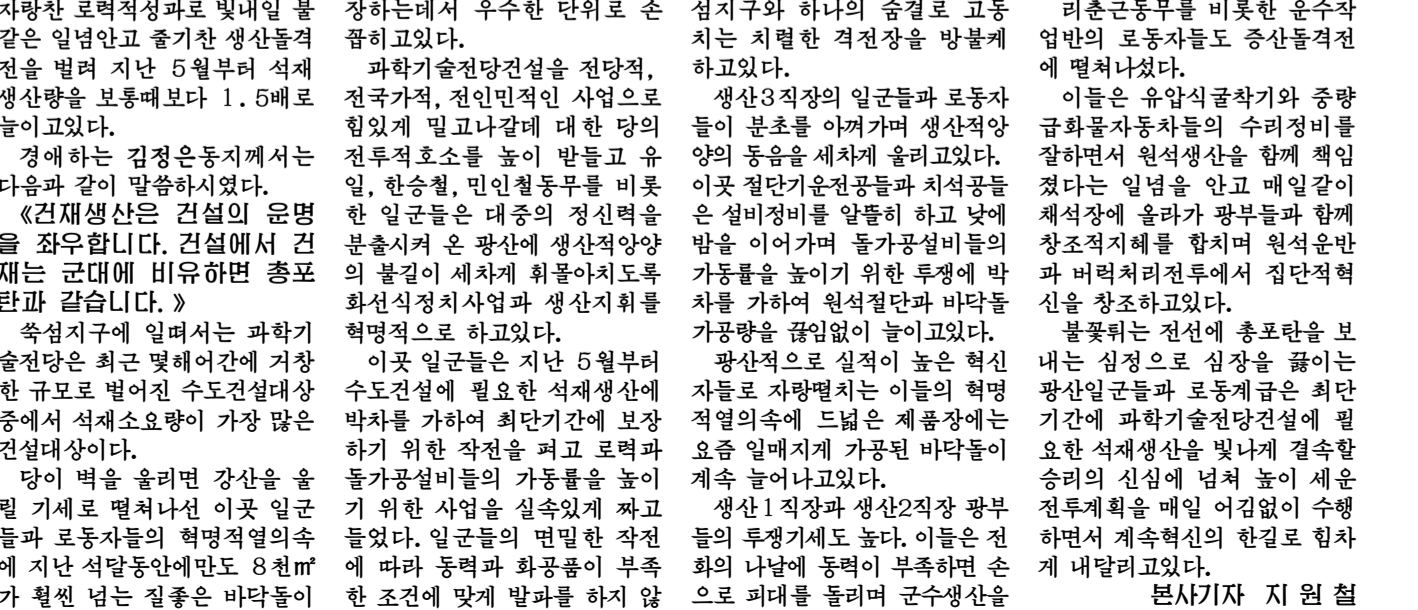
이 벽을 올리면 강산을 울릴 기세로 펼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에 따라 동력과 화공품이 부족 한 조건에 맞게 발파를 하지 않

보장했던 콘크리트동계급처럼 원석채취업에서 선군시대 선군로동계급의 열의와 열정을 힘있게 펼치고있다. 이들의 불같은 열정속에 온 광산에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세차게 휘몰아치도록 화선식정치사업과 생산지휘를 혁명적으로 하고있다.

이들은 유망성공과 중량급화물자동차들의 수리정비를 갈라면서 원석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일념을 안고 매일같이 채석장에 올라가 광부들과 함께 창조적지혜를 합쳐서 원석운반과 버려져리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불꽃튀는 전선에 총포탄을 보내는 심정으로 심장을 끓이는 광산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최단기간에 과학기술전당건설에 필요한 석재생산을 빛나게 결속할 승리의 심정에 넘쳐 높이 세운 전투명령을 매일 이김없이 수행하면서 계속혁신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서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떨치자

전투장 한복판에서 우리를 찾으라!

모든 일군들이 야전형의 지휘 성원이 되는것,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생전으로 물려주고 그 관철에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데서 함경남도당위원회가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목표이고 사업기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화선에 나가 앞장에 서서 자기 부름, 자기 단위를 이끌어나가는 기관차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을 야전형의 지휘 성원으로 준비시키는데서 당당위원회가 무엇보다 중시한것이였다.

언제나 병사들, 인민들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산도범을 보여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모든 일군들이 뼈에 새기도록 한것이다. 학습과정은 물론이고 각 부서 책임지도원, 담당지도원들의 하루하루도사업요강포지, 총화사업공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방식을 깊이 인식시키는 과정으로 전환시켰다. 그 과정에 당위원회들의 모든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업방법과 작품을 그대로 본받아 원수님과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진정한 동지, 전우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게 되었으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앞장에서 주도해나가는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될 의지를 백배로 가다듬게 되었다.

함경남도당 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모든 일군들이 야전형의 지휘 성원이 될데 대한 당의 호소를 행동의 구호, 실천의 구호로 물려주고나갈 때만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서 훌륭한 성과가 이룩된다.

이로부터 당위원회는 실천을 매우 중시하였다.

최대도를 최대한 현장에 접근시키고 대중속에 더욱 깊이 들어갈수 있게, 이것이 당책임일군들의 주창이고 사업방식이다.

올해 최악의 가뭄로 모내기 전투에 난관이 조성되었을 때였다.

정경군에 나간 당책임일군은 대중속에 들어가 긴장한 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도를 찾아내었다. 오래전에 폐기된 양수장들을 다시 건설하여 모내기와 농작물비베판에 필요한 물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었다. 군안의 로동자, 사무원들을 발동하여 물걸이기기를 내밀도록 하는 한편 도적인력량을 파견하여 여러개의 양수장들을 건설하게 하였다. 양수기들이 전자동으로 금강물을 퍼올려 저수지들에 채워 물길마다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었고 생수, 장물, 장물 등 물이 긴장하던 여러 농장에서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일수 있게 하였다.

책임일군의 모범을 따라 당위원회 각 부서일군들이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되어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특히 영도읍직단위원회 유훈관철의 맨 앞장에서 내달리도록 하는 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었다.

불비 쏟아지는 전파의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찾아주신 광포오리공장의 생산성과와 번도맛까지를 당위원회현직인 사업으로 물려주고 내밀어 성과를 이룩하도록 한 사실을 높고고자.

당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은 여러차례 현지에서 나가 공장이 영도읍직단위원회의 면모를 더 잘 갖추어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박력있게 전개해나가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현장에서 일군,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전기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도 오리고기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수 있는 방도를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대중이 발동하니 좋은 안일이 나왔다. 당위원회는 공장초급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유훈관철에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적극 뛰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일꾼들이 작업반과 여러 비숙련자들에게 수동트럭기보따라가 전설되는 엄격한 체계를 세웠으며 좋은 경험은 일반화하는 사업을 따라세웠다. 이렇게 하니 일군들의 현장침투가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었으며 당당단위 총업인들속에서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일군대열이 날로 늘어났다.

당위원회일군들이 들끓는 전투장에 몸을 꼭 잡고 현실인들속에서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일군대열이 날로 늘어났다. 화선에 나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풀어주는 당위원회 일군들의 헌신적인 사업기풍은 통성기계면합기업소에도 전변을 안아왔다.

우리 나라 글자의 기계제작기 지인 이곳에 지열설비생산기지를 꾸리는데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받들고 매일같이 현지에서 나간 당위원회의 일군은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었다. 씨카르브력과 목재가 걸려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는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지체없이 10여대의 증광급화물자동차를 동원하여 장진원산사업소까지의 긴급목재수송전투를 조직하고 지휘하였다. 1만여장의 씨카르브력도 해결해주어 건물공사의 틀과구를 열여섯했다.

일군들의 사업실적총화와 평가를 유훈관철에도 지침이된 한 조직부일군이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을 완강하게 내지 못하던 한 일군을 도와주어 그가 비료생산정확도에 필요한 갈탄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한 사실, 알고있는 한 초급일군을 전철축의 심정으로 보살피주어 비료생산에서 한문단만 하도록 한 사실 등 당위원회일군들이 화선에 나가 대중의 마음을 울려 준 일을 생각해 보면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따라세웠다. 이렇게 하니 일군들의 현장침투가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었으며 당당단위 총업인들속에서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일군대열이 날로 늘어났다.

당위원회일군들이 들끓는 전투장에 몸을 꼭 잡고 현실인들속에서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일군대열이 날로 늘어났다. 화선에 나가 걸린 문제를

대단히 좋았다.

회나 문에서 메어달리던 종래의 사업방식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화선식, 야전식으로 전환시킨 결과 유훈관철에서 커다란 성과가 얻어 이룩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찾으시였던 함흥남대생전농장 온실본공장의 생산이 높은 케도에 올라서고 함흥청년발전소건설이 전례없는 속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함흥계약공장건 1단계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보다 큰 성과는 일군들이 대중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정을 주고 이끌어주는 당사업기풍을 확립한것이다.

함흥남대생전농장을 담당 한 조직부일군이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을 완강하게 내지 못하던 한 일군을 도와주어 그가 비료생산정확도에 필요한 갈탄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한 사실, 알고있는 한 초급일군을 전철축의 심정으로 보살피주어 비료생산에서 한문단만 하도록 한 사실 등 당위원회일군들이 화선에 나가 대중의 마음을 울려 준 일을 생각해 보면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따라세웠다. 이렇게 하니 일군들의 현장침투가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었으며 당당단위 총업인들속에서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일군대열이 날로 늘어났다.

당위원회일군들이 들끓는 전투장에 몸을 꼭 잡고 현실인들속에서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일군대열이 날로 늘어났다. 화선에 나가 걸린 문제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변함없이 물려주고나가야 합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 1선에 지금 우리 당일군들이 서 있다. 대중을 당정책결사관철에 힘입어 불러일으키는 데서 가족의 역할을 다 하고있는 당일군들의 사업의 일단을 전한다.

명단에 없는 《농장원》

대중발동을 잘하면 무슨 일이나 잘된다.

안변군당위원회 책임 일군은 늘 이런 관점에서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창조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모내기전투로 끝났던 지난 5월에도 그랬다. 절세위원들의 불멸의

《오늘은 나와 함께 달려 봅시다!》

일마진 평안북도간석기건설원기공소 당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며 청강기계화사업소 대청화물자동차 운전사 현근식동무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대중의 열의를 발동하여 간석기 대공사에 방대한 과업을 수행할데 대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단위에 주신 간곡한 유훈이다.

비상한 각오, 불같은 열정

평안북도간석기건설원기공소 당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며 청강기계화사업소 대청화물자동차 운전사 현근식동무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대중의 열의를 발동하여 간석기 대공사에 방대한 과업을 수행할데 대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단위에 주신 간곡한 유훈이다.

명단에 없는 《농장원》

대중발동을 잘하면 무슨 일이나 잘된다.

안변군당위원회 책임 일군은 늘 이런 관점에서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창조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모내기전투로 끝났던 지난 5월에도 그랬다. 절세위원들의 불멸의

《오늘은 나와 함께 달려 봅시다!》

일마진 평안북도간석기건설원기공소 당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며 청강기계화사업소 대청화물자동차 운전사 현근식동무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대중의 열의를 발동하여 간석기 대공사에 방대한 과업을 수행할데 대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단위에 주신 간곡한 유훈이다.

성공의 진미보다 더 단것은 아마도 더 맛있는다.

평천일용필수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공장에서 소형착취구명탄생산에 필요한 석탄연소형성첨가제를 도입하는데 마침내 성공했던 때가 바로 그러하였다.

그동안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우리의 석탄연소형성첨가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고집찬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기쁘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주신용맹정신때문에 얼마나 마음쓰셨던가. 이제는 우리의 석탄연소형성첨가제를 가지고 소형착취구명탄을 광방 생산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보장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눈물까지 글썽하면서

유훈관철에서 큰걸음을 내딛고 진행하게 될 총화모임에서 누구나 멋있을것이었다.

총화모임이 작전모임으로 바뀐 사연

그런데 예상외의 일이 벌어졌다. 총화모임이 작전모임으로 바뀐것이였다.

사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급이아말로 김정일동지 의 슬하에서 형을 배운 우리 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연히 분발해나서야 할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시기입니다.》

성공의 마당에서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간파한 문제가 있었다. 적지 않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일시 마음의 랑계를 풀어놓고있는것이였다. 그것은 수지대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에 덜 발 벗고나서는데서 표현되고있었다.

물론 성과는 크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

한 투쟁에서 도중이런 있을수 없다. 경공업 부문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할 때까지 오직 앞으로!

초급당부서 리정수동무는 지배인 김경길동무와 함께 이런 각도에서 문제를 같이있게 되어나 보았다. 그리고 해당 대책을 취하였다. 결국 성과를 론하고 만세를 부르는 총화모임이 아니라 수지대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국산화하는데 힘쓰도록 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찾는 작전모임이 열리게 되었다.

조건은 어렵지만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수지대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국산화하는 사업을 강력히 밀고나가기 위한 전진 토의가 진행되었다.

작전모임이 진행된다는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근거있게, 줄기차게 내밀도록 깨우쳐준 정치사업과정으로 되었다.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성과에 자만과 모르고 더욱 분발하여나섰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속에 공장에서는 남흥청년화합합기업소에서 생산된 원료와 어느 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폐기물을 리용하여 질 좋은 수지마대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하여 다른 나라의 원료에 의지할 때보다 원가를 절반으로 낮추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

총화모임이 작전모임으로 바뀐 사연.

이것은 각급 당조직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그 투쟁을 일관성있게 이끌어갈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지난해 4월 청년강화력발전소 초급당부서로 임명되었던 김강일동무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자주 멍곤 하는 생산공정들, 불뚫리는 건물들과 구내에 출몰하는 먼지...

한마디로 단위의 전반사업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못하고 있었다.

그보다 더 가슴아픈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서 기발을 들고 나야 할 일군들이 초급이 갖추어야 할 자라면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를 모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사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발전소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자자구구 새겨볼수록 초급당일군은 유훈관철은 더없이 절박한 사업이며 바로 여기에 발전소사업의 혁신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있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유훈관철을 당사업의 총자로 틀어쥐 초급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조항별로 따져가며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어느날 일군들의 회의에서 한달 동안에 두기의 보타를 대보수

자신에게 먼저 내린 돌격구령

청년강화력발전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전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겠다는 각오부각이 지는것이 기본입니다. 자기 단위에 주신 유훈은 자신이 전적으로 맡아야 하는 임무에서 서면 방도가 나오기마련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에게 내린 돌격구령이기도 하였다.

초급당부서와 부비서 정성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제 일 어려운 일감을 스스로 맡아나섰다. 발전소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강선으로 하루가 멀다하게 오가며 끼니를 번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물자동차처럼 한우에서 새날을 맞곤 하는 그들을 목격한 전력공업성의 책임일군들은 정말 믿지 않은 당일군들이라고 탄복하며 전진으로 도와나섰다. 천리마계합기공장의 로동계급은 전력생산은 누구나 도와 할 일이라고 하면서 장제

를 증산하여 발전소에 보내주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보이래대보수기일을 줄인다고 하여 보수에서 형식주의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변을 보수해도 오랜 기간을 담보할수 있게 질적으로 하자, 이것이 초급당위원회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제기한 높은 요구성이였다.

현장에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의 협의회가 수시로 열렸

다. 만약 그때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유훈을 관철하지고 호소하고 말로 끝내는 식으로 정치사업을 대치하였다면 보이래대보수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았을것이다. 보이래대보수가 앞당겨지자 전력생산은 지달아 올랐다.

초급당위원회는 보이래대보수전투를 통해 앙양된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기개 발전소구내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혁신이 편이 일어났다.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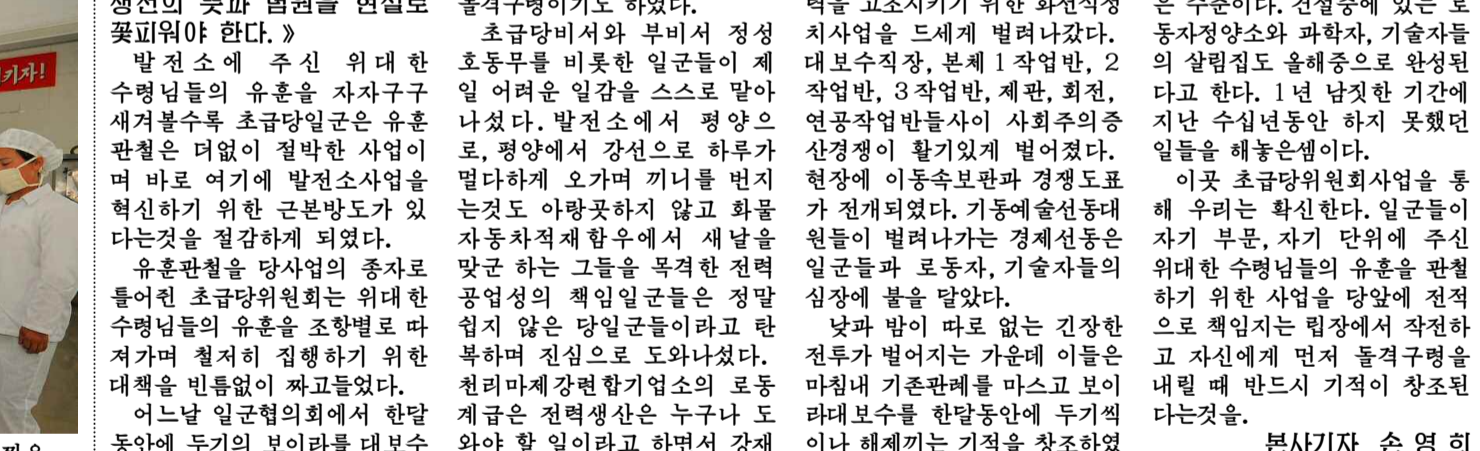
름후에는 먼지가 흩날려오는데가 퍼지포장되었다. 김일성-김정일의 연구실과 연력소게설이 훌륭히 개건되어 도와 시에서 진행중인 보여주기사업에서 높은 평가받았다. 구내에는 진로소가 아담하게 들어앉았다. 수림화, 원림화, 파수원화도 높은 수준이다. 건설중에 있는 로동자정당소와 과학자, 기술자들의 살림집도 올해중으로 완성된다고 한다. 1년 남짓한 기간에 지난 수십년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놓은셈이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을 통해 우리는 확신한다.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림장에서 작전하고 자신에게 먼저 돌격구령을 내릴 때 반드시 기적이 창조된다는것을.

본사기자 손영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지방원료에 의한 식료품생산을 늘리고있다. -창성식료품공장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풀먹는집짐승을 많이 기르고있다. -계곡농장에서- 본사기자 리명 찍음

중산의 열쇠 - 두뇌전, 기술전

새로운 모배양방법을 탐구도입한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의 경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양식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정보당 바다가양식물생산량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길러낸 다시마모듬이 올해 여러 바다가양식사업소들과 수산사업소들에서 단단히 한몫하였다. 모듬이 하나같이 충실한것은 물론 부착력이 커지고 사물들도 종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것이다. 이것은 혁신적인 다시마생산성공에 이어졌다.

생산에서 눈에 띄는 전진을 이룩하고있는 단위들이 가보면 의례히 들게 되는 말이 있다. 두뇌전, 기술전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시마모듬기에서 일어난 변화도 두말할것없이 두뇌전, 기술전의 열매이다.

사실 이 사업소는 지난해 다시마양식에서 적지 않은 고층을 겪었다. 그 전해에 생산한 모듬의 부착력이 크지 못해 종업원들이 총동원되어 양식장에서

어려차례나 모보식을 했다. 이 단위에서 모를 받아가는 다른 사업소들도 다름이 없었다. 주번의 용진,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들만 보아도 모보식을 하느라 많은 종업원들이 추운 겨울 양식장마당에서 긴장한 전투를 벌였다.

물론 이렇게 모보식을 하게 된것은 메는데 없는 태풍이 여러차례 양식장을 휩쓸었과도 관련되어있었다. 하지만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은 문제를 그렇게만 대할수 없었다.

자연은 황포하다. 예고없이 나타나곤 하는것이 자연의 변화인것이다. 그렇하면 어떻게 때때로 태풍이 들이치는 속에서 모듬이 떨어지나가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다. 일군들은 그 해결의 근본열쇠를 다름아닌 두뇌전, 기술전에서 찾았다.

모가 충실하게 결실도 충실하다. 한몸이 그대로 다시마모가 되어서라도 중산의 지름길을 열어제끼야 한다는 비상한 정신력은 과학기술중시이로 이어졌다.

모의 부착력을 세계 하자면

무엇보다도 모를에 감긴 모실의 잔털을 말끔히 제거해야 했다. 잔털이 모중자가 붙으면 부착력이 약해져 태풍피해를 더 크게 받게 되기때문이었다.

사업소에서는 종전까지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제거하고 또 이리저리 현인으로 잔털을 100% 없애지 못하고있었다.

사업소당, 행정책임일군들은 기술자들과의 협의 끝에 잔털을 제거하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할것을 결심하였다.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라 당의 의도대로 과학기술의 통마를 타는가 따지지 못하는가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짧은 기간에 위약대 내밀어 결실을 보았다.

결과가 좋았다. 수동으로 하던 작업이 자동으로 전환되었고 잔털을 말끔히 제거할수 있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이 작업에 들던 15명의 인원은 2명으로 줄어들었다. 가스를 리용하니 연료, 전기를 절약하고 종전에 쓰던 전동기가 발동기도 필요없게 되어 더욱 좋았다.

한고리를 풀어 들, 셋을 얻은 일군들은 모배양방법을 개선하여 사물들도 높이도록 기술자들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물론은 보장과 영양면투입이였다. 일군들은 이 문에도 과학기술의 기여하여 풀어나갔다. 특히 영양면투입량을 종전의 1/3로 줄이면서도 충실한 모를 키우고 사물들을 높인것은 낡은 사고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난 창조적인 결실이었다.

《사실 우리는 지난 시기 참고서적에만 매달리면서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모배양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자제기술력량을 충분히 꾸리고 수직차에 걸치는 실험끝에 가장 합리적인 영양면투입량을 확증, 도입하여 덕을 보니 정말 생각되는것이였습니다.》

사업소책임일군의 이야기였다.

영양면투입량을 훨씬 줄이면서도 사물들을 끌어올린 이 결과와 시사해주는바는 대단히 컸다.

만약 사업소일군들이 기성

리뿐만 아니라 메어달리면서 혁신적인 안목에서 작전하고 실천하지 못했더라면 그러한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웠을것이다.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자기 식으로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려는 배짱은 모배양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되었다.

이 단위에서는 어린 다시마모듬의 뿌리발육을 더 튼튼히 해주기 위해 바다에서와 같이 물흐름환경을 조성시켜주는 일도 자동화하여 은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우리 당 과학기술중시사상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이 단위에서 이룩된 성과는 전국각지 바다가양식사업소들과 수산사업소들에서의 다시마생산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누구나 이렇게 두뇌전, 기술전의 열매를 안고 10월의 대추진장에 들어서야 한다.

우리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면시키기 위한 투쟁에 자신들도 서있다는 자각과 새로운 모배양방법을 탐구도입한 경험은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김충성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의 사상과 진수를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한 학습조직을 창설하게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열마진 농산계 4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작업의 원장에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인민생활향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의와 열정을 생동한 사실자료와 결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분조

로산군 백화리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 깊이 새겨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농장의 모든 초급일군들이 지난해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의 사상과 진수를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한 학습조직을 창설하게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열마진 농산계 4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작업의 원장에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인민생활향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의와 열정을 생동한 사실자료와 결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분조

인류의 념원에 도전하는 미일의 군사적결탁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 수많은 나라들에 파국적인 재난과 불행, 고통을 들이던 지난 세기의 두 번째 세계대전을 돌이켜보는 인류는 그와 같은 세계적규모의 전쟁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절절히 념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류의 념원에 배치되지 새로운 세계대전발발의 위험성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때문이다. 그러한 나라들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과 더욱더 군사적으로 결합하고있는 군국주의일본이다. 오늘날에 와서 일본은 《평화국회》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전쟁국가, 침략국가의 본성을 드러내놓고있다.

우선 일본은 해외침략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를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전쟁도발을 위한 법률적도대를 마감단계에서 구축해나가고있다. 최근에는 현 내각이 《우력공격사태법》, 《주변사태법》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규정한 기존의 법률을 뜯어고쳐 하나로 묶은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을 승인한 데 이어 국회를 거쳐 법률적으로 고착시키려 하고있다.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것을 조작하고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워놓아 침략국가의 체제를 갖추었다. 얼마 전에는 《일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자위대》가 미국이 임의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군사작전에 《지원》의 명목으로 참가할수 있게 만들어놓음으로써 해외 침략의 길을 세계적범위로 확대하였다. 《집단지위권》을 결코 무용하게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떠들고있는 일본이다.

또한 일본은 지난해에 《무기수출3원칙》을 개악한 데 이어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적준비를 발발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지난 세계 태평양전쟁때 일제의 무기 생산을 담당하였던 미쯔비시중공업과 가시와지중공업 등 전범기업체들이 첨단 무기개발과 생산에 광분하고있다. 신형 수송기 《오스프레》와 최신예조기정찰기인 《E-2D 호크아이》, 무인정찰기를 비롯하여 방대한 무장장비들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올해 일본의 군사예산은 420억US\$로서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야말로 위험천만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또한 일본은 과거죄악을 부정하고 침략사실을 전미하는 등 사회의 우경화를 조장하고있다. 일본집권세력이 양당에서 군국주의를 선동하고 북수주의를 고취하고있다. 지난 세계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으로 오도하고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애국자》로 추어올리는가 하면 성노예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망발도 거러없이 내뱉고있다.

일본인들은 머리속에 침략과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아니라 호전적인 《아마도 민족주의》, 군국주의사상을 주입시켜 해외침략을 위한 사회적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이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모든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70년기간에 일본군국주의가 부활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군국화는 미국의 비호후둔과 부추김의 직접적산물이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종결전야에 일본을 전후 아시아 침략의 길잡이로, 돌격대로 써먹을 흉계를 꾸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의 재성, 재부상을 극구 뒤받침해왔다. 일본의 진주만공격으로 뒤뚱수를 만난 단히 얻어맞았던 미국과 미국의 원자탄투하로 참변을 당한 일본이 상권과 주로서서의 군사적동맹관계를 맺고 오랜 기간 공모결탁해오갔다는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침략과 지배, 패권수립과 관련한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따른것이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나라들사이의 관계주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여러 나라들의 영향력확대와 국제관계의 다극화가 적극 추진되고있으며 지배주의의 정체가 가는 곳마다에서 완강한 반대에 격에 부딪히고있다.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던 미국은 심각한 정치, 경제적위기에 시달리면서 패권지위를 상실하고있다. 이런 속에서 미국은 일본을 바짝 끌어당겨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고있다.

지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국들을 견제하고 《초대국》의 지위를 부지하기 위해 일본을 부추키면서 그들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효과있게 써먹으려 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최근년간 일본집권세력의 《집단지위권》행사요, 안전보장관련법개정이나 하는것들을 적극 옹호해나서고 위협계선을 넘어선 군사력강화에 대해서도 못 본척 하고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썩 이전부터 날로 장성강화되는 쓰르른 견제 목적밑에 도이힐만도가 파초와와 침략에로 나아가도록 음모적으로 떠밀어주었던것이나 다를바 없다.

일본은 저들대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에 편승하여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일본이 군국주의길로 출달을 치면서 팔팔한 전쟁마당에 뛰어들는 경우 우상상도 하지 못할 참혹한 후과가 초래될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종결 70년이 되는 올해에 미국과 일본이 다같이 깨달아야 할것이다. 침략적인 야말로 저들의 지배주의적이익을 실현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망상이다.

그 어떤 공모결탁도 평화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의 단합된 힘을 이길수 없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야 말것이다.

만사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후대사랑

국 제 사 회 계 가 격 찬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학살소년들의 웃음소리, 노예소리가 랑랑히 울려져오고있다. 경치좋은 곳마다에 꾸러진 소년단야영소들에서, 학생소년군들에서, 유평장에서 기쁨속에, 행복속에 함께 웃는 학생소년들의 모습은 그대로 송고한 미래관을 씩뚱뚱으로 지니신 천출이들을 높이 모신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저나라는 세 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세대로 내세우시고 친어버이인 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의 정치를 격찬하고있다.

로씨야의 따스통신, 민주공공신문 《라브니》를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열굴을 다정히 어루만져주시고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대표들을 믿음과 사랑을 담아 축하해주시는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뜨거운 후대사랑으로 만사사람의 심금을 울리시는 세쉬워있는 미래관을 높이 찬양하고있다.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배후면적운동과 김정일장군 배후면적운동의 공동성명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 행사에서 축하연설을 하신것은

후대사랑을 높이 찬양하고있다.

후대사랑을 높이 찬양하고있다.

후대사랑을 높이 찬양하고있다.

후대사랑을 높이 찬양하고있다.

후대사랑을 높이 찬양하고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현대성기간

기 네 에 서 개 막

의 근대와 인민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에 대항해 안고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각각께서 계시어 조선인

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 리리아드 살무르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해소되기를 바라고있으며 미국이 대조선침략책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 아브라모에 디알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위상발상을 또다시 걸고쓰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개막식에서는 6월부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진행할 현대성형사예회가 발표되었다.

6. 25-7. 27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하여

성 명 발 표

6. 25-7. 27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하여 예외외미아 김일성-김정일주의영웅 전진국위회회가 6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6. 25-7. 27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보인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조선전쟁을 감행하였고 조선인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참예를 당한 미국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전개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명색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홍수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홍수통일》야말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의 통일과 북남

인 터 네 트 에 글 게 재

6. 25-7. 27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도이힐만드단계가 인터넷트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전력문제해결노력

만민경제가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자체의 힘으로 양곡과 떠너타리에 각각 30만kw, 5만kw능력

발전소를 건설하며 이외에도 각지에 9개의 화력발전소를 일떠세울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이 실현되면 여기에서만도 총 900만kw이상의 전력생산능력이 조성된다고 한다.

정부는 전력생산능을 늘여 2030년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들에 전기를 공급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8일

이 나라 신문이 밝혔다.

범 지방부 투쟁

케니아에서 최근 범지방투쟁을 강화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7일 이 나라 정부는 로비에서 강화투쟁을 일삼고 4명의 무장범죄자들을 소탕하고 무기들을 압수하였다.

금 생산

수단에서 상반년에 43%의 금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많았을것이라 한다. 7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금 생산

수단에서 상반년에 43%의 금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많았을것이라 한다. 7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금 생산

수단에서 상반년에 43%의 금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많았을것이라 한다. 7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금 생산

수단에서 상반년에 43%의 금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많았을것이라 한다. 7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금 생산

수단에서 상반년에 43%의 금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많았을것이라 한다. 7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금 생산

수단에서 상반년에 43%의 금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많았을것이라 한다. 7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금 생산

수단에서 상반년에 43%의 금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많았을것이라 한다. 7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금 생산

수단에서 상반년에 43%의 금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많았을것이라 한다. 7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심장깊이 체득해야 할 백두의 혁명정신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일군들 강조

백두산지구를 답사한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일군들이 최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들과 회견하였다. 회견에서 그들은 답사를 통하여 조선인민이 지니고있는 불굴의 투쟁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에 대하여 잘 알았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펴려하였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백두산지구답사단 단장인 이 동맹 연변지구위원회 1부서 에브게니 라렌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영광화합을 방망하였다. 이곳에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번 답사를 통하여 백두의 정신을 깊이 체득하였다. 이 정신은 우리의 사업을 보다 활력있게 전개해나가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우리가 받아안은 모든 체험과 감정을 그대로 로씨야에 안고가겠다.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여 시위



세 계 를 우 령 하 기 가 만 하

얼마전 미국에서 《미국자유법》이라는것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애국법》 제 215조를 개악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수사기관들이나 정보기관들이 재판소의 허가 없이 받아야만 개인정보기록과 같은 정보자료들을 수집할수 있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2001년에 《애국법》 제215조가 제정되면서부터 이 기관들은 재판소의 허가 없이 통화기록들을 대량적으로 수집할수 있게 되었다. 비밀리에 통화기록을 수집해오던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은 9. 11사건이 발생한 후 이 조항을 근거로 자기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기까지 하였다.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의 80여곳에 도청시설들을 설치해놓고 정탐행위를 수없이 강행해왔다. 일반주민들은 물론

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 리리아드 살무르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참예를 당한 미국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전개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명색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홍수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홍수통일》야말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의 통일과 북남

인 터 네 트 에 글 게 재

6. 25-7. 27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도이힐만드단계가 인터넷트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전개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명색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홍수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홍수통일》야말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의 통일과 북남

인 터 네 트 에 글 게 재

6. 25-7. 27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도이힐만드단계가 인터넷트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전개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명색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홍수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홍수통일》야말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의 통일과 북남

인 터 네 트 에 글 게 재

6. 25-7. 27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도이힐만드단계가 인터넷트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전개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명색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홍수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홍수통일》야말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의 통일과 북남

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 리리아드 살무르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참예를 당한 미국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전개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명색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홍수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홍수통일》야말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의 통일과 북남

인 터 네 트 에 글 게 재

6. 25-7. 27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도이힐만드단계가 인터넷트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전개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명색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홍수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홍수통일》야말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의 통일과 북남

인 터 네 트 에 글 게 재

6. 25-7. 27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도이힐만드단계가 인터넷트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전개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명색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홍수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홍수통일》야말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의 통일과 북남

인 터 네 트 에 글 게 재

6. 25-7. 27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도이힐만드단계가 인터넷트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전개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명색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홍수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홍수통일》야말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의 통일과 북남

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 리리아드 살무르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참예를 당한 미국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전개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명색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홍수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홍수통일》야말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의 통일과 북남

인 터 네 트 에 글 게 재

6. 25-7. 27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도이힐만드단계가 인터넷트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전개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명색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홍수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홍수통일》야말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의 통일과 북남

인 터 네 트 에 글 게 재

6. 25-7. 27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도이힐만드단계가 인터넷트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전개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명색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홍수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홍수통일》야말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의 통일과 북남

인 터 네 트 에 글 게 재

6. 25-7. 27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도이힐만드단계가 인터넷트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전개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명색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홍수통일》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홍수통일》야말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선의 통일과 북남